SEP 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2 1981년8월2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August 2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한인회장단 후보 단일팀 등록

회장에 박인순 과도위원장
부회장 장영채·고순복

회장단 공석으로 새 회장단을 뽑는 토론토한인회장단 선거는 박인순(현 과도운영위원장, 오리엔탈파레스 사장) 회장후보, 장영채(전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장)·고순복(「낙시마」제약회사 슈퍼바이저)부회장후보의 3명이 한팀으로 단독출마, 이번에도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될 것같다. 한인회장단 입후보등록은 24일 하오 마감, 단일후보인 이들은 오는 27일(토) 하오1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인준만 받으면 무투표 당선된다. 임시총회의 정족수는 1백명으로 토론토인근에 거주하는 한인교민들로 구성되며, 과반수 찬동으로 인준된다.

◇회장후보 박인순 과도운영위원장

◇장영채 부회장후보

24일 박인순 위원장은"회장 입후보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입후보를 승낙한 것은 22일 밤이었다"고 말했다

박인순 과도운영 위원장이와에 함의현(상점경영)씨가 이영현(영리무역) 송권현(바우종합광고)씨등과 한팀으로 입후보 하려다가 마감일인 24일 포기했다

10년전 이민온 함씨(50)는 25일 "최근 수년간 한인회가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분규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권고해서 회장에 나오려했다 그러나 유능한 박사장이 나오는 것을 알고 무조건 입후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인순 회장후보는 부회장으로 장영채씨 외의 1명을 구하지 못하다가 마감시간을 서너시간 앞두고 함병섭 코리아타운 번영회장의 도움으로 고순복(47)씨를 부회장후보로 정했다

한인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고씨는 약제사였으며 이곳서는 직장외에 한인합창단(박재훈 지휘)단원 한인교향악단(김승순 지휘) 총무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성가대원등을 지내는 열렬한 음악애호가이다 고씨는 자기 사진이나 약력의 신문게재를 극력반대 하는 스타일의 인물이다

박운영위장은 한국연예계에 관계했고 이곳서도 나이트클럽 오리엔탈·팔레스, 음식점 뉴서울등을 경영하는 한편 한인회 씨알학교 장학재단등 한인사회에 폭넓게 관여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모나지 않으면서도 일을 추진하는 박력 수완 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이 나있다

부회장 후보장씨는 체육회 태권도협회 호남향우회, 해군동지회등 굵직한 단체의 최고감투를 고루쓴 인물이며 런던지역서 살다가 토론토로 이주 한때식당업을 했었다

박회장후보단은 유권자 52명의 추천을 받았으며후보등록때 1천달러의 등록금을 한인회에 냈다 이돈은 당락에 관계 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새 회장단의 임기는 전임 강우석 회장단의 잔여임기인 83년1월까지이다

강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인회분규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 박인순 장순채 장영채씨가 과도운영위원장단으로 선정됐었다

강회장단 역시 단일후보팀으로 작년11월 입후보 무투표당선됐었다

고교동창 배구 12일 다운스뷰

제2회 고교동창 배구대회가 오는 12일(토)오전9시 30분 다운스뷰·델스·파크에서 벌어진다. 작년 우승팀인 성동고교 주최로 열리는 이 경기가 끝난후 같은장소에서 오락 순서를 갖는다. 참가비는 팀당 50달러. 연락처는 293-6138, 267-5550

사진촬영대회 심사마쳐
총51점, 시상식은 19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제6회 사진촬영대회 입상작이 결정됐다

21일 한인사진협회 이인덕 회장을 비롯 이울윤 임정재 박세도 김명선씨등 임원은 본사에서 출품작 심사를 마쳤다

출품작은 칼라 45점 슬라이드 6점등 51점이었다

작년도 출품작은 60점이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토) 하오7시 한인회관에서 거행되며 이때 입상자를 발표하고 출품작을 전시한다

심사원들은 3등 작품까지를 이의없이 쉽게 결정 "보는 눈이 모두 같다"는 말을 실감시켰다

이회장은 금년 작품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높으며 숫법이 대범하다고 말하면서 "떡다보니 그런 작품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노력의 결과로 좋은 작품이 나왔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평했다

◇사진협회 임원진이 출품작을 심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덕 회장, 이울윤, 한사람 건너 박세도, 임정재씨.

"동양사상과 북미문학"
문협 교양문화 강좌

[illegible] (회장 박충도)는 9월11일(금) 하오7시 토론토시내 랜스다운 서브웨이 뒷편의 장연탁씨 조각연구소「삼우스튜디오」(58 Wade Ave. 전화 : 537-7630)에서 교민을 위한 교양문화강좌를 실시한다

격월제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이번 주제는「동양사상(특히 불교)이 북미문학에 끼친 영향」(시문학을 중심으로)이고 강사는 선련사 주지 김참우씨이다

대학생·고교생및 관심있는 일반교민 다수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참가비 없음)

한·일사관생 상호초청, 견학

(동경25일=연합) 5명의 한국육사생도들이 9월1~5일 일본 자위대사관학교(JAPANS Defense College)를 순방할 것이라고 24일 동경의 한 소식통이밝혔다.

이들은 일본생도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수업과 훈련참관을 비롯, 사관학교생활을 견학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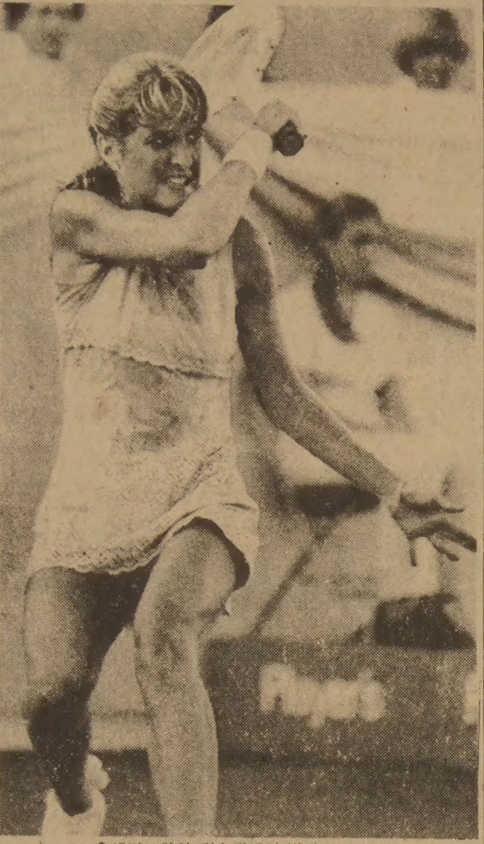
이 소식통은 한국의 육사생도들도 이번 초청의보답으로 일본 생도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문화』 6월호 出刊
LA 한국文化院 발행

LA한국문화원이 계간으로 발행하는 영문판「한국문화」(KOREANCULTURE) 6월호(VOL2, NO2)가 출판됐다.

이조시대 선비 강이오의 초상화를 표제로 한 이번 호에는 케이E볼래의「민속화의 종교적인 측면」,수잔무제티의「서예가 원곡 김기승」, 다니엘 부세[illegible]의「기생·풍속의척도」등이 실려있다.

총 44페이지, 칼라.


◇에버트와의 결승전에서 받아치는 오스틴

오스틴 우승
캐나다 여자테니스

23일 요크대학 테니스·코트에서 속개된 2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캐나다·오픈」여자테니스 챔피온 쉽은 트레이시·오스틴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illegible] 1위이며 1번시드인 크리스·에버트를 맞아 2번시드의 오스틴은 예상과는 달리 6:1, 6:4로 쉽게 승리했다.

이번대회 우승자 오스틴이 받은상금은 3만4천달러이다.

"에버트와의 경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리라고는미처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오스틴은 18세의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현재 세계랭킹 2위이다.

금년 26세의 에버트는12년간 선수생활을 했으며, 이번에 연소의 오스틴에게 졌으나 금년도에는 윔블돈 우승등으로 대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오스틴은 에버트와의 대전에서 총전적 8승6패로 2게임을 더 이겼다. 또한 최근전적 7전6승1 패로 오스틴이 에버트를 앞서고 있다.

오스틴에게 대한 징크스가있으나 에버트는 금년전적 46승2패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있다.

에버트는 이번 경기로1만7천5백달러를 받았고, 그녀의 [illegible] 수입은 33만 1천72달러에 이른다.

한편 유일한 한국프로선수 이덕희(28)양과 본선 3회전에서 격돌, 이긴바 있고, 세계 최강의 선수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나바로틸로바는 준결승전에서 오스틴에게 7:6, 6:4로 패했다

금년부터 캐나다 오픈은 2 디비죤으로 나누어서 남자경기는 이미 지난주 몬트리얼에서 열려 체코의이반·랜들이 우승했다

美中性子彈생산 비난
북한, 핵전쟁유발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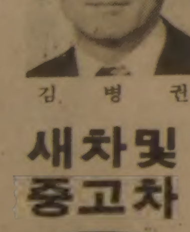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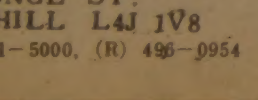
(동경-UPI) 북한은 19일, 미국의 중성자탄 생산결정에 대해 이것은 전쟁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8월휴가 모국방문 특별요금안내
출발일자 : 8월 7, 14, 21, 28일
(뉴욕경유, KAL편)
요금 : 성인왕복 $1180
어린이 왕복
(2~12세) $645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제1회
바시티배 쟁탈 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타
SUN-LIFE (윤호영)
국 제 상 사
●심판위원 : 박재선, 박샌디, 김정서, 문영환,
김문광, 조용덕, 김계일, 정경호,
박홍일, 박세영, 장인배, 윤호영,
최어락, 조동시, 정세용, 김은하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박세직首警司令官의 갑작스런 解任에

美軍高位層 놀라움 표시

軍內部의 權力形成용납않는 조차로 해석

뉴욕 타임스지는 한국의 전 수도경비사령관 박세직 장군의 예편은 미국인을 놀라게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서울발 기사로 보도한 뉴욕 타임스지는 박장군의 예편은 주한 미군간부들을 놀라게 했으며 전대통령 재임중 분수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훤출한 키에 40대 후반의 막강한 세력을 쥐고 있던 박장군은 동기생 이규환씨의 청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귀가중 연행됐었다.

박장군은 노태우장군과 함께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노장군이 예편됐다.

박장군은 정권에 야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촉망되는 장군이고 미국인에 인기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전대통령이 양대세력을 동시에 거느릴 수 없는 것은 내부 긴장완화를 위해 자명한 일이며 서방 외교관들은 전대통령도 박대통령처럼 군내부의 권력형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는것으로 보고 있다고 NYT지는 보도했다.

아빠노릇 熱中

트뤼도 加首相

부인과 別居後, 5~9살 세아들 養育에 전념

얼마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7개국정상회담의 호스트 피에트·트뤼도수상은 훌륭한 정치인 못지않은 자상한 아버지.

올해 61세라는 나이에 어울리지않게 9살짜리 저스틴, 7살짜리 샤샤, 5살짜리 미첼 등 어린 세아들을 둔 트뤼도 수상은 77년 부인 마가렛여사와 별거한후 쭉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

32살짜리 말괄량이(?)부인 마가렛여사는 요즘 수상관저에서 단지 2블럭밖에 안 떨어진 곳에 살고있다.

끊임없이 염문을 뿌려온 그녀가 최근 동거중인 상대는 배우 로버트·레드포드를 닮은 변호사이자 가구회사 사장인 제임스·존슨씨.

마가렛여사는 그같은 자신의 남자관계에 대해 공개적인 편이라 항상 요란한 가십의 주인공이 되곤한다.

그러나 트뤼도 수상은 자신을 귀찮게하는 질문에는 결코 답하지 않는다.

그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에 그는『그같은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말하겠다』고 잘라버린다.

그러나 지금 트뤼도 수상의 마음을 가장 차지한것은 71년에 옛된 모습으로 그와 결혼, 결국은 별거에 이르게된 부인이 아니다.

그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

아이들과 점심을 같이하기 위해 거의 매일 점심은 집에서 들며 가끔 아들들의 친구집을 방문, 같이 게임을 즐겨 그부모들을 놀라게한다.

또 자녀들의 불어가 미숙한 것을 발견, 올가을부터 몬트리얼에 있는 학교에 다니도록 등록하는등 교육열도 대단하다.

엄마인 마가렛여사는 그들의 별거초기에 비하면 휠씬 얌전해졌다.

사진에 관심을 가졌다가, 글을 쓰는가하면 또 연기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데이트상대를 바꾸던 시기는 지나갔다.

물론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을「가정주부」라고 일컫는다.

그녀는 첫 저서인「이성을 넘어서」로 논쟁을 벌치못했으나 최근 또 2번째 저서를 집필중에 있다. 물론 그녀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생각을 구술해주어 받아쓰게 하는것.

지난주 이들 5명의 가족은 함께 런던을 다녀왔다.

마가렛여사가 새로 나올 자신의 책을 선전하는동안, 트뤼도 수상은 자녀들을 돌보고, 트뤼도 수상이 찰스왕자 결혼식에 참석하는 동안에는 마가렛여사가 아이들을 돌보아주었다.

트뤼도 수상은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된다.

---바쁜 政務中에도 점심은 아들과---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때 사막에서 아들 샤샤를 안고있는 피에트·트뤼도수상. 정치못지않게 자상한 아빠노릇에 열심이다.

휘발유값 또 올라

30일부터 리터당 40센트

(오타와) 막·라롱 연방정부 에너지장관은 오일가격이 30일부터 리터당 2.4센트씩 오를 것이라고 24일 시사했다

이번 인상으로 레귤러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39.9센트가 되며 이것은 79년12월의 24.2센트에 비해 무려 65%가 오른 것이다

이번 인상은 오는 1일부터 알버타주정부가 오일생산량을 하루 6만배럴씩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알버타의 오일가격은 중동산 가격의 절반 미만이었다 알버타의 오일생산 감축계획은 수입산 석유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불을 증가시킨다.

피터·로히드 알버타 주수상은 알버타주와 연방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생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빈·레이휘 알버타주 에너지성장관은 곧 연방정부 에너지장관과 에너지자원 배분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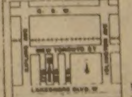
새임원 선출 경희대 동문회

경희대학교 동문회는 최근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새임원을 선출했다. 경희대는 토론토지역에 50여명의 회원을 가졌다

회 장：이정호
부회장：정정옥(여)
박찬도
감 사：차원봉
재 무：최영식

전년도 회장은 윤덕조 부회장 조기연 이정호 박찬도씨였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㊻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가을에 발정기가 오기바로전의 수사슴과 발정기바로후의 암사슴은 신체적으로 가장좋은 시기이며, 일년중 이때에 기름의 양을 필요한만큼 구해 놓을수 있다.

가을에 잡은 수놈에게서 뽑을수 있는것은 30여파운드의 순기름 덩이인데 발정기가 끝나면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나 여러마리의 수놈에게서 나오는 기름이 물개 한마리에서 나오는 기름만큼 많지가 않다.

가을사냥 기간동안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1년치기름을 모아 놓지만 연료,음식 혹은 난방용으로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에는 대부분 불을 때지않고, 또 불꽃도 없이 긴 겨울을 암흑속에서 지낸다.

영하 50도의 겨울온도에 이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몸속에 저장되어있는 지방분이 타고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마다 난로가되어 봄철이 올때까지 충분한 사슴의 지방분이 몸속에 남아있기만 하면 사람이 도저히 살수없는 환경에서도 무난히 살아남는다.

바렌에서 겨울에 살아남을수 있는것은 충분한 지방분이며 단지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다. 연료처럼지방분의 중요함은 겨울에살아 남는것 만이 아니라 여름에 더위를 타지않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내가 프란쯔와 긴 카누 여행을 하는동안 체험했다.

우리는 가지고 갔던 식량이 거의다 떨어져서 1파운드의 차, 반파운드의 라드(돼지기름)과 얼마안되는 실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사슴을 잡아 먹을수 밖에 없었다. 한 여름 철이었기 때문에 파리떼가 성하므로 사슴은 멀리 북쪽으로 이동해서 거의 찾아볼수 없었고, 우리는 아주 적은 고기로 연명하는 수 밖에 없었다. 며칠간은 잘 견디었지만 주말이 되기전에 사슴고기를 적당히 섭취하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오는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카누여행 도중에 이 병으로 고생하게 되는것은불행한 일이었다. 강물은매우 빠르게 흘러내렸으나자주 언덕으로 올라가서 쉬어야 했고, 파리떼가 덤벼들어 잠시 앉아있는것이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이병은 계속해서 설사를 하게되는데, 나는 무기력 해졌고, 만사가 다 귀찮게 여겨져 여행을 할수 없게 되자 나는 걱정이 되었다.

전쟁때 서실리에서 이질에 걸려 고생하던것이 기억났고, 거기서 부터 응급치료를 받자면 삼백마일을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암담해 졌다. 프란쯔가 참다못해서 나를 간호했다. 하루저녁엔 남아있는 귀중한 반파운드의 돼지기름을 프라이 팬에다 녹여서 다시 엉겨붙기 전에 들여마시도록 했다. 이상하게도 지금은 미지근한 돼지기름이역겹게 생각되지만 그때는그것이 먹고싶어 졌다. 그것을 다 마시고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나는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다. 이상한 치료방법 같았지만사실상 내가 전혀 몰라서 그랬지, 지방분을 섭취하지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방분이 직접적인 영양가인 동시에 생리학적으로 볼때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미처 몰랐었지만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고기를 많이먹지 못하면 북극에서는 몸에지장이 온다는것 쯤은 이제 알게 되었다. 지방분은 고기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효소와 같은 작용을 하는지도 모른다. 혹은 지방분에는 어떤 필요불가결한비타민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지방분이 어떻게 작용하든 간에 이것은 북극에서 겨울을 나는동안 꼭 필요한 많은 칼로리를 제공해줄뿐 아니라 고기를소화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 것이다.

물론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항상 이 점을 알고 있었으며, 겨울이나 여름에특히 고기가 풍부하지 않을때라도 하루에 한번씩 꼭 기름덩어리를 먹는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기름덩이를 먹는것이 정상이긴 하지만 언제나 먹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고기기름이떨어지면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쉽게 병에걸리고 다른 증세에도 매우 적응을 하지 못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지방분이 에스키모들에게 추운 기후에 견딜수 있게하는 몸안의 연료도 되지만 매일매일의 식사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라는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점은북극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책임맡은 당국의 행정가들은 전혀 알고 있는것 같지않다.

(계속)

영어수학 가정특별지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과 실력에 따라 다음의 교재를 준비지도해 드립니다.)

1) Vocabulary Development(단어실력 양성) (10 Lessons)
2) Comprehension 1. Comprehension 2(이해력 양성) (각 10 Lessons)
3) SRA(SRA교재) 1권(10 Lessons)
4) Novel Study(소설) 두권
5) Mathematics Problem Solving(수학응용문제) (10 Lessons)
(약2개월분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Profile을 작성해 아래주소로 보내주십시요.

STUDENT'S PROFILE

1) Name : ________ 2) Address : ________
3) Tel : ________ 4) Grade in Sept : ________
5) Think very carefully and circle one of the underlined. This is very important in designing your learning materials. In my class(grade), I am
a)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in Reading(English)
b)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in mathematics
c) I read books not fluently, fluently, very fluently
d) my 2 favourite subjects or hobbies ________ ________

STUDENTS' LEARNING HOME WORK CENTRE
1429 MALIBOU TERR., MISSISSAUGA, L5J 4B9
TEL. 822-5735 교사 윤 종 석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파는 도매상"
사은대매출 — 8월말까지

1	WILSON POP		$5.29
2	CANADA DRY		5.69
3	LOLA		3.89
4	MR. FREEZE		8.89
5	TWIZZLER	5¢	1.89
		10″	2.99
6	M & M(198g)		1.19

(위의 가격은 CASH & CARRY에 한함)
취급품목 : Cigarettes, Tobacos, Confectionaries, Groceries, Frozen Foods, Varieties, Stationary, Film & Battery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SPECIAL을 비치하고 고객에 써비스를 합니다.
주문즉시 신속배달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對日政策 전면再檢討

政府、外相회담계기 能動·積極자세 轉換

"日의無誠意 對韓輕視자세 兩國관계에 悲觀的인조짐" 高位소식통

정부는 이번 韓日外相會談을통해 日本의 여전한 對韓자세와 無誠意를 확인한것을 계기로 對日政策을 전면 재검토、종래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轉換할방침이다。정부는 이에따라 盧信永외무장관이 귀국하는대로 이번주안에 高位關係者회의를열어 外相회담의결과를 분석하는것을 계기로 오는9월 定期閣僚회담등에대비한 일련의대책을 협의할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 고위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도 日本이한국에 대한 엉뚱한 優越의식과對韓輕視자세를 드러내는한편 한반도상황과 한국의 防衛노력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소위防衛分擔的 經協을 거부한것은 友邦인 한국과 美國에대해서는 물론 東北亞의 安定을 책임진 一員으로서 정치도의적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한국을 보는 그릇되고 偏向된 日本의 觀角과 자세를 시정시키기위해 보다 능동적인 對日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安保인식」같이하며 「安保經協」거부는 二律背反"

정부는 특히 일본정부가지난5월의 美日頂上회담및 오타와의 7개先進國頂上회담을통해 「安保戰略과 經濟協力」에 합의했음에도 불구、그 첫적용케이스라고 볼수있는 이번韓日外相회담을통해 새삼 安保와經協의 분리를 주장한사실을주목、日側의 정확한 底意와배경에 분노를 나타냈다。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日側에 전달된 한국측 요청에관해 『美日頂上회담등을 통해 양해 정립된 기본인식에 입각、한국側이 그 첫적용케이스로 일본에 요청한 安保지원』이라고 밝히고 『표리가 다르게 나타난 日側의 입장에 대해 우리정부로서는 지금과는 다른강경한 대책을 수립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65년國交正常化를 맞은 양국관계에 비추어 이번 外相회담과 9월의 定期각료회담및 연말의 양국頂上회담은 名實相符한 「제2의 國交正常化」를 뜻한다고 전제、『그러나 그첫 접촉인 外相회담을 통해 드러난 日側의 無誠意와 懷疑的인 반응은 앞으로의 양국관계에 관한한 비관적인 조짐』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美日頂上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제9항)을 인용、스즈끼(鈴木善幸)日수상이 『새로운 中期목표아래 정부개발원조의 擴充에 노력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역에대한 원조를 강화해나갈것』을 레이건美대통령과 합의했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對日本정책의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不均衡한 韓日관계를 水平對等관계로 유지하며 ▲이를위해 정치적으로는 日本으로하여금 韓半島를 중심으로한 東北亞安定의 책임과 의무를 지우도록하며 ▲이른바 韓半島의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對北傀접근도 단호히 배격하게될것임을 이 소식통은 示唆했다。

이와함께 外交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경우 事案에따라 형식적인抗議나 의사전달을 넘어 행동이 따르는 強硬자세로임하며 經濟관계도 貿易逆調시정에 성의를 보이지않을때에는 經協의 多邊化등 일련의 대책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安保經協거부는납득안가" 美國務省관리

【워싱턴21日=聯】 『한국과 일본사이의 거리가 그처럼 먼줄은 몰랐다』 이것은 현재 東京에서 진행되고 있는 韓日외상회담에 대해 한미국무성관리가 보인 첫반응이다。

이 관리는 회담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찬성을 보냈지만 회담내용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논평을꺼렸다。

그러나 全斗煥대통령의 워싱턴방문이나 스즈끼 일본수상의 미국방문을 직접다뤘던 이 관리는 私見이라는 전제를 달고 『한국의 접근방식과 일본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지난번 양국원수의 워싱턴방문에서 실감한 바이지만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처럼 양국견해가 평행선을 유지한다는것은 양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않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특히 한국이 요청한 대규모 경제협력에대해 한국이 이를 안보에 연계시킨다면 응할수없다고 밝히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국무성관리는 보다 예리하게 일본의 입장을 관찰하고 있다。이 관리는 『미국정부가 대외무기원조를 방위목적에만 사용토록하고 있는 것을 아마도 일본이

外務委 週內소집 검토

소노다極言、韓·日관계 對策추궁

民正·民韓총무

民正·民韓·국민등 각정당은 소노다(園田)日本外相의 對韓안보관계 極言의진상과 東京에서 있었던 韓日外相회담결과를 듣고 韓日관계에대한 앞으로의 對策을 강구하기위해 今週에 국회外務委의 召集을 검토하기로 했다。

民正黨의 李鍾贊 民韓黨의 高在淸총무는 22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접촉을 갖고 韓日外相회담참석차 訪日중인 盧信永외무장관이 귀국하는대로 정부측의 보고를듣고 소노다 妄言및 韓日관계 전반을 논의하기위한 外務委소집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민당의 李萬燮총재는 최근의 韓日관계를 보고받고 對策을 논의하기 위해 조속히 外務委를 소집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런데 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은 오는 9월10일 서울에서 韓日각료회담이 열리기때문에 사태의 진전을 신중히 검토한뒤 召集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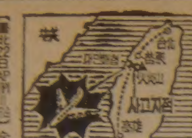
民正·民韓양당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오는24일 국회國防委를소집、北傀MIG機의 白翎島상공침범사건을 비롯한 北傀측의 일련의 군사도발등 安保상황에 관한 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이에대한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臺灣여객기爆發 百10명沒死

國內線 보잉737機 臺北남쪽 百50km 上空서

항공사관리들"故意的파괴행위"推定

臺北 聯合報·本社 國際전화



【臺北22日AP合同=聯】 승객1백4명과 승무원6명등 1백10명이 탑승한 대만국내선 遠東항공(FAT) 소속보잉737여객기가 22일 상오11시10분(한국시간)타이페이남방 苗栗縣상공에서공중폭발、탑승한 전원이 사망했다고 관계당국이 발표했다。한국인승객에 의하면 1백4명의탑승객중에는 일본인17명、미국인3명、국적이확인되지않은 서구인2명등 외국인22명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FAT103편 보잉737기는 이날 상오11시 臺北 中山공항을이륙、남부도시인 高雄으로향해 비행중이었다。

사고기는 臺北에서 남서쪽으로 1백50㎞ 떨어진 苗栗縣三義마을부근 大尖山 상공에서폭발한것으로알려졌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사고기는 공중에서 갑자기 폭발한후 화염에 싸여 땅으로 떨어졌는데 항공사관리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사고가아니라 누군가에의한 고의적 파괴행위일 가능성이짙은것으로보고있다。

〈사고비행기와 동형인 보잉737機〉

일반적으로 기체에 흠이붙은후 폭발이 뒤따를때 단순사고로 친다。

이번 사고는 대만항공사고사상 최악의것인데 지난64년에도 같은 지점에서 대만C46항공기가 공중폭발、승객46명이 사망했었다。

항공사측은 1시5분께 사고현장에 헬리콥터를보내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논바닥에 처박힌 비행기잔해속에서 33구의 시체를 발굴했을뿐 아직 자세한 사고경위를 밝혀내지 못하고있다。

離陸직전 故障도

【臺北22日AP合同=聯】 보잉737기가 폭발 추락한 사고지점은 민가가 드문지역으로 부근에 인가가 있었는지 또 비행기추락으로 인해 지상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리·호 遠東항공 부사장은 사고기가 이날 상오 7시50분(한국시간 8시50분)에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조종실의 기압에 이상이있었기때문에 1시간이상수리를한후 상오10시에야 이륙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고기는 사고직전인 10시9분께부터 臺北의 관제탑과 교신이 끊겼다。

한국인乘客은 없는듯

한편 한국일보의 姉妹社인 타이베이의 聯合報는 이날하오 본사와의 긴급국제통화에서 사망승객중 한국인은 없다고 밝히고 대만의 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위해 이날상오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갑자기 내린 중국인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중국인은 심장병환자로 현재 드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聯合報는 또 이날하오 7시현재 사망승객중 외국인은 일본인 13명、미국인 3명、또 중국인은 아니지만 신원이 확실치않은 2명등 모두 18명이었다고 전했다。

參謀人力 일선分散

民正、行政기구 改編건의

民正黨은 行政機構개편방안으로 중앙에 불필요하게 집된 參謀人力을 일선에 분산배치하고 大局大課主義에 입각、지나치게 세분화된 系·線조직을 統廢合하는것등을 정부에 건의할방침이다。

李鍾贊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측이 행정조직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이 작업의취지는 전체공무원의수를 축소시키는데 있는것이아니라 업무의 적정한 분산과 능률화에있다』고 강조했다。

民正黨의 행정기구개편방안에는 그외에도 ▲불필요하거나 사무가 중복되는 高位기구를 폐지 혹은 一元化하고 ▲對民업무중 여러행정부처에 連繫되는 업무에대해서는 관계部處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개발、對民봉사체제를 개선하고 ▲일부부처의 관리능력과 관리업무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것등이 포함돼있다고 李의장은 밝혔다。

봉황대기고교야구

오늘의 對戰 (23일)

▲준준결승

▲善隣商—大邱高 (12시반)

▲北一高—全州高 (3시)

어제의 成績 (22일)

▲준준결승

	1	2	3	4	5	6	7	8	9	計
釜山商	0	1	0	0	0	2	0	1	1	5
光州商	0	0	0	2	0	0	0	1	0	3
清州高	0	0	0	0	0	0	1	0	0	1
慶北高	2	0	0	1	0	1	0	1	X	5

한독양말 협찬

막바지 鳳凰大旗야구…스탠드喊聲은 아직도「暴炎」

◇봉황 야구는 대회 막바지 접어들어 더욱 열기를 뿜고있다。43게임을 치른 22일 현재 釜山商과慶北高가 4強에 선착、정상에 한발다가 섰다。초록 봉황대기는 어디로갈까。대회초반 맹위를 떨쳤던 폭염은 수그러들었지만 선수들의 플레이와 팬들의 함성은 더욱 뜨겁다。빨래줄 같은 타구가 하늘을 가를때 마다 봉황 스탠드서는 탄식과 환희가 엇갈린다。

韓美합동海上훈련

韓美양국해상 합동기동훈련이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동남해안일대에서 실시된다고 韓美연합사가발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社会漫評

미묘한 악수

地平線

내일 모레 사이에、각급학교가 모두 개학한다。조금은 헐하던 출근길 버스가 다시 붐비겠구나—생각하며 우스개 아닌 우스개가 떠올랐다。본보 자매지 코리아·타임스「時想」난에、弘益大영문학교수인 미국인 존·그래버씨가소개했던 얘기다。

▼하루는 그래버씨의 동료인 미국인 친구가 웃음을 터뜨리며 이런 말을 하더란다。—출근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 제복을 입은 중학생 몇이 눈에 띄었다。학생들이 외국인에 흥미를 갖는것 같기에 그는 인사말을 건넸다。『굿 애프터눈(안녕하십니까)』그랬더니 뭔가 수군대던 끝에 한학생이 대답했다。『아이·앰·어·스튜던트(나는 학생입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미소를 짓게 하는 거리 풍경이다。10몇년전 중학생이라면 어물어물 겸연쩍은 웃음이나 짓고 말았을지도 모른다。말을 걸어 왔으니、대꾸한다는 것만해도 훌륭하다。그러나 그 미국인 교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것이다。도대체 한국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왜 영어를 배운 학생이 간단한 인삿말도 못할까。

▼사실은、미국인이니까「간단한 인삿말」이지、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미국에 얼마간 있어본 경험으로 해도、한동안은「굿모닝(안녕하십니까)」「땡큐(고맙습니다)」의 외마디가 쉬 떨어지지를 않던것이다。그에 비하면 대학강의실의영어는 오히려 속이 편하다。이런「고충」은 반드시 생활습관·언어 감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만은 아닌성싶다。

▼「간단한 인삿말」이 간단치 않은 까닭을、그래버씨는 우리 영어교과서에서 찾고 있다。그 첫권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된다。『아이·앰·톰(나는 톰입니다)』그 다음이 앞서 나온『아이·앰·어·스튜던트』다。문법상 완벽하지만、살아있는 영어는 아니다。그대신『굿 모닝』『굿 애프터눈』은 책 말미에 부록으로 붙어 있다。쓸모있는 영어교육의 체계가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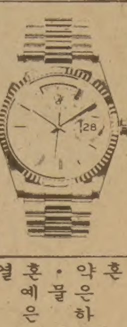
▼그래버씨의 지적은 너무 端的이다。하지만、올여름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학생들중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줄 안다。본디 2～3주 연수로 영어가 늘 까닭도 없지만、앞세워야 할것은 살아있는 영어교육의 바탕이다。그런 것을 외면한채 연수여권만 내준다고、영어교육이 되는것은 아니다。대학생을 귀국소감대로、연수의 성과가「見聞」에 있다면、그것은 관광여권으로도 족한일이다。그리하면 연수등록금이라도 절약이 될테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7
은 :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임시총회공고—

한인회 회칙 제28조 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장단 입후보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회 장 : 박 인 순
(현 한인회 과도위원장)

부회장 : 장 영 채
(현 한인회 과도부위원장)

부회장 : 고 순 복
(화장품 낙시마회사근무)

한인회칙 제8조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일 시 : 1981년8월29일(토) 오후7시

장 소 : 토론토지구 한인회관

안 건 : 신임회장단 인준및 기타사항

1981년 8월25일

한인회과도대책위원회 회장대리 장 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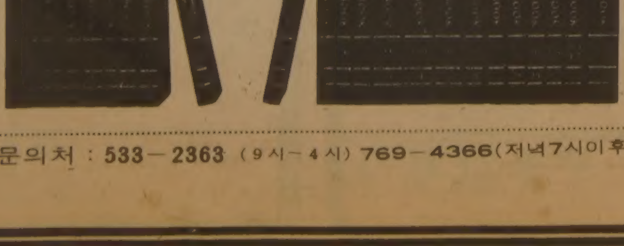
토론토지구 한인회선거관리위원장 김순창

위원 문인식, 오현구, 윤병선, 정창헌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챠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日「安保經協」발뺌奸計

——韓日外相회담에 비친 3角現地 진단

東京의 視角

일본의 對韓인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작년 이맘때만해도 反韓단체의 데모가 그치지 않았으나 오늘의 일본에서 韓日우호 협력의 증진을 반대하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金大中재판으로 야기 되었던 불편한 韓日관계는 2월의 韓美정상회담과 5월의 美日정상회담 으로 일소되고 韓日우호 협력시대를 맞았다.

국제여론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韓日관계의 좌표를 설정키 위해 외상회담, 정기각료회담, 頂上회담이라는 일정에따라 韓日교섭에 임한다. 이런상황이니만큼 韓日외상회담은 결렬될수없다는 배수진을 친 속에서 열렸다.

全方位외교와 等距離외교로 소련과 북한에게 추파를 던졌던 일본은 힘을 배경으로한 레이건의 외교에 의해 자연히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위치를 굳힐수 밖에 없게됐다.

일본이 서방진영으로 확고한자리를 잡음에따라 제일 가까운 한국과의 友好협력관계는 저버릴수가 없게됐다.

한국의「防波堤」역할 認定하면서 「平和헌법」내세워 實利追求 급급

한국의 안정이 일본의 안정에 직결된다는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그공통인식을 기반으로 韓日경제협력을 대폭증대해야한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무작정 외면할수도 없게됐다.

금년봄 全斗煥 대통령이 訪美해서 한국의 방위가 美日방위의 방파제라고 주장했을때만해도 일본은 언제히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는 외무성고위관리도 국회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방파제理論」은 한국으로서 보면 긍정적인면이 있다고 이해를 표명한다.

더우기 韓·美·중공이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對蘇봉쇄의 포위망이 구축되는 경향이므로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대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의 방위가 적어도 일본을 포함한 東北亞방위의 중요한 전략적요소라는데는 이론이 없으므로 자유서방진영의일원인 일본은 군사적협력이 어렵다면 경제협력이라도 증대해야한다는 국제여론의 압력을 받는다.

盧信永외무장관은 20일에 열린 제1차 단독회담에서 일본정부가 발행한 防衛白書를 들어 『北傀의 증강된 군사력은 외국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남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한반도의 긴장고조에따라 한국은 방위비를증액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고 나아가서 東北亞안정에 기여하고있다는점을 역설, 소노다(園田直)외상의 이해와 동의를 받았다.

일본은 예상외로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평화헌법을 들어 安保와 연계된 경제협력은 거부했다.

이에대해 盧장관은 『65년 韓日국교정상화 당시 이를 반대했던 20代가 오늘날 40代로 성장하여 한국을 이끄는 중견층이 되었고 이세대는 오늘날 2백5억달러에 이르는 對日무역적자와 12억달러에 불과한 일본의 공공차관을 놓고 과연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노다외상도 이와같은 盧장관의 현실적 설명에 수긍이 가는 고개를 숙이고 찬동 했으며 安保와 연계한 經協은 불가능하지만 새국가건설에 이바지 하기위한 경제협력은 성실성의를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은 명분인 安保論에 찬성하고 실리인 經協문제엔 꼬리를 뺐다. 과연 일본이 소노다외상의 약속대로 성의성의껏 지원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국의 새국가건설에 협력할것인지는 더두고 봐야할 일이지만, 韓日양국은 각각명분과 실리를한개씩 나눠가진채타협했다.

일본은 21일 韓日외상단독회담에서 盧외무부로부터 처음으로 5년동안에 60억달러의 公共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받고 입을 딱 벌렸다.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거액의 재정차관을 한국측이요청할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막상 한국의 외무장관으로 부터 60억달러라는 숫자를 듣고 액수의 많음에대한 충격과 더불어 그에따른 국제여론의 압력을 느꼈다고 일본의 한고위관리는 말했다.

공짜안보로 자유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미국의 방위력증강요청을 거부하고 또 한국의 경제협력마저 거부한다면 국제협력을 모르는 너무 인색한 나라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분이야 어떻든 한국이 제시한 60억달러 經協요청에 대해 일본은 각료회의와 韓日정상회담을 거쳐 經協규모를 제시할것으로 보이며 그 액수의 다과에따라 일본의 한국에대한 友好협력에의 척도가 나타날것이다.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

워싱턴의 視角

「한국의 방위노력이 일본의 안정에 기여하고있으니 일본이 對韓경제협력을 대폭 늘려야한다…일본의 對韓경제협력은 한국경제를 도우는 것이지 한국의 방위노력을 분담하는것은 아니다…등으로 한일간에 불협화음이 일고있는 것같은 주장에 관해 논평하고싶지 않습니다. 한일양국 스스로가 공통분모를 찾아야할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일본의 對韓경제협력이 한국의 안정에 기여하며 한국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일外相회담의 초점이 되고있는 다소 말썽많은 경제협력에 관해 20일 한 책임있는 美국무성관리는 이상 논평하려 하지않았다.

한일간에 중요한 문제가 거론될때, 논란이 있을때마다 언론을 포함한 양국사회는 얼마간 과잉반응을 보여온 것같다. 핵심은 경제협력이다.

지난번 하와이에서 열린 美日안보협의회에서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둘러싸고 美日간에 의견차가 크게 벌어졌듯이 韓日간의 경제협력을 두고서도 의견차가 크게 나타날수 있다.

이런 의견차는 그 내용면에서 뿐아니라 상호 다른정치풍토를 이해하려고노력하지않는데서도빚어지게된다. 하와이회담서 일본에게 방위력의 대폭증강을 요청한 美국방성의 주장이 국무성이나 백악관의 의견과는 다를 것이고 기대했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일본은 당황했다지만, 미국의 노력과 그에 상응하

이미 反蘇연합물결 同乘한 日本 「공짜安保」누리며 連帶意識 배척

는 일본의 노력으로 견해차를 되도록 조용히 줄이려고 양국은 아직도 고심하고있다.

일본은 좀 특이한 나라다. 일본은 경제巨人이지만 그정치는 경제를 따라가지못하는것 같다.

일본은 견고히 짜여진 공개사회지만 부분적으로는 폐쇄적 (비타협적)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의 內的인 힘이 나오나 外的인 말썽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의 정치문화나 풍토는 경제를 번영케하고 정치안정을 보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나 성공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는데는 그렇게 기능적이지가 못하다. 지역협력을 짊어져가야할 세계적 역할에 일본은 서툴다.

일본은 세계적 경제대국이나 상호의존의 국제주의 지향의지는 비교적 낮다.

일본의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연결짓는 정책결정과정은 다른나라에 비해 복잡한 편이다.

일본의 政·財·官界가 간여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각계의 하위수준이 고위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줄때가 더러있다.

일본은 1945년후 美軍 부담(위기)을 최소화하는 외교로 최대실리를 얻어온 성공적 원칙을 고수하고있다.

세계도 변하고 일본이 해야할 역할에도 변화가 왔으나 그들은 고수해온 이 원칙에 선뜻 변화를 가하려고 하지않는것같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조용히 인내하면서 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對蘇차관을 둘러싼 양국간의 협상에서는 의견의 폭이 넓은것 같으나 한가지 빠뜨려 보아서는안될것은 아시아의변화 (소련팽창)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 일본사회와 自民黨주류에도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全方位평화외교를 내세우는 일본에서의 변화의 흐름의 정도가 소련팽창세와 북한위협에 직접 맞서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게는 불만스러운것일지라도 그흐름이 서방입장을 뒷받침해주어야 할것이다.

지난 7월하순 오타와에서 열린 서방경제정상회담을 전후해 스즈키 일본수상은 레이건美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먼저 그의 외교중요일정으로 올가을후에 全斗煥 한국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西歐·일본의 反蘇연합이념이 짙게깔렸던 서구경제정상회담 자리에서 美日이 韓日문제를 거론했다는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초 워싱턴에서 열린 美日정상회담후 나온 공동성명은 『일본을 비롯한 東아시아의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를 촉진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美지상군을 유지하는 美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안보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수준의 관여는 美日공동성명의 핵심의 하나가된다.

美日정상회담에서는 美-日-韓의 3각협력이 의제의 하나로 논의되었다고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는 기자들에게 행한 배경설명에서 밝혔다.

스즈키수상은 美日정상회담을 마친후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미국이 공산주의를 막는 전초기지가 되고있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우는 반면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도울수 있을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한일經協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든가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곤란을 도울수는 있으나 방위노력을 분담할수는 없다든가하는 일본관리의 말에, 또 그이상의 궤변은 美日정상회담이나 오타와7개정상회담때와는 거리가 먼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말을 하는 일본고위관리도 속으로는 달리 생각하면서 우리와 정치풍토가 다른 일본野黨, 일본언론을 의식해서 그렇것으로 넓게 풀이해 볼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그 발언은 양측이 내놓는 숫자가 엄청나게 다른까닭에 그것을줄이려는 협상기술로 나온것일수있다.

중요한 것은 말장난같은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협력 그 자체이다.

일본은 북한을 평가함에있어서도 북한에 단독전쟁도 발발능력이 있다는 쪽으로 과거와는 달리 접근해오고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反蘇연합의 물결이 美-日-中-아세안-한국등에 도도히 흐르고있다. 한국과 일본은 함께 그흐름을 타고있다.

【워싱턴22日=吉淳煥특파원】

◇反美시위벌이는 리비아人들 리비아군중들이 20일 수도 트리폴리에서 反美시위를 벌이고있다. 【트리폴리21日 AP羅=綜合】

가다피、"對美전쟁도 不辭"

3次大戰 위험불구… 강력宣言

【아디스아바바21日 外電=綜合】 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는 21일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침공을 계획하고있다고 비난하고 리비아는 3차대전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自國영토를 방어할 태세가 돼있다고 선언했다.

가다피국가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19일 지중해상공에서 빚어진 美·리비아 전투기간의 공중전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 논평하는 가운데 미국이 리비아의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면서 위험한불장난을 저지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전이발생한 시드라灣이 『리비아의한부분이며 한 구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시드라만방위가 미국과의 개별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것이 될지라도 이를 수호한 태세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가다피원수는 아덴에서 리비아·이디오피아·南예멘등 親蘇3國간의 우호조약을 체결한후 이디오피아 공식방문을 위해 20일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다.

그는 또 리비아가 미국에 정면으로맞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나토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원하고나설 경우에는 리비아도 전세계 여러우방들의 지원을 촉구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機、미사일先攻 모두빗나가 F14、熱線추적… 2臺연달아命中

航母니미츠號 보고

【워싱턴21日 AP=綜合】 다음은 미항모 니미츠호가 본국정부에 보낸 보고에서밝혀진 미F14기와 리비아전투기간의 공중전 상황이다.

소제 SU22 리비아전투기는 기지를 이륙한직후 시드라만에서 작전중인 미6함대 소속 F14기에 의해 곧 탐지되었다.

리비아전투기는 고도 6천m로 상승한후 시속 8백4㎞ 이상의 속력으로돌진해왔으며 F14기의 조종사들은 리비아전투기의 접근을 11.2㎞~12.8㎞거리에서 포착했다.

미공군기들은 리비아기가 6㎞이내로 접근하자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가장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기체를 이동, 리비아기의 배후에 또진했다.

리비아전투기는 1백52m 거리에서 F14기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F14기는 리비아 공군기가 태양전면으로 지나가자 열원을 확인하기위해 잠시발사를 늦췄다가 0.8~1.2㎞의 거리에서발사, 명중시켰다.

이어 또하나의 F14기가반대방향으로선회하는리비아기에 미사일을 발사, 격추시켰다. 첫번째명중된리비아기는 폭발하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낙하산을 이용, 탈출했다.

0.8㎞거리에서 미사일에 명중된 두번째 리비아기는 폭발, 공중분해되어버렸으며 탑승조종사의 운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레이건도 報復대상 美, 리비아聲明분석

【워싱턴21日 外電=綜合】 리비아는 自國전투기 2대가 최근 지중해上空에서 美전투기들의 미사일공격을받고 격추된데 대한 분노의 표시로 아마도 레이건美 대통령까지도포함된 미국의 목표들에 대해 보복을 가할지도모른다고 미국정부관리들이 21일 우려했다.

관리들은 리비아軍장교그룹인 「自由장교연맹」이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레이건대통령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성명을발표한 사실을지적, 리비아가 모색중인 보복대상에 레이건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분석했다.

"中性子彈 배치支持"

슈미트 社民黨內 반대輿論일축

【본21日 UPI=綜合】 슈미트서독수상은 21일 집권社民黨내의 강경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중성자탄의 유럽배치지지를 재확인했다.

슈미트수상은 이날 TV회견을 통해 지난78년 서독에 중성자탄배치를미국에허용한 자신의 결정을 고수할것이라면서 서독연방정부는 이결정을근본적으로변경해야할것으로보지않는다고강조했다.

슈미트수상은 지난78년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가 중성자탄의 서독배치를 승인하고 다른 나토회원국들이 중성자탄의 자국배치에 동의한다는 전제조건아래 중성자탄의 서독배치에 동의했다.

슈미트수상은 중성자탄의 서독 배치를 재확인함으로써 지난주 중성자탄이 東·西군축회담에 장애가 되며 따라서 유럽배치를 금해야한다는 정책성명까지 발표한 社民黨의 반대를 묵살한것이다.

英政府"사실과 달라"否認

美의 中性子彈 유럽配置 촉구

【런던21日 AP=綜合】 영국정부는 21일 와인버거美국방장관이 영국에 대해 서독주둔영국군에 중성자탄을 보유시키도록 촉구하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영국국방성대변인은 미국이 중성자탄의 배치와 관련, 영국에 접근한일이 전혀없다고 밝히고 미국은 중성자탄의 미국내배치의도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中性子彈을 유럽에배치시키기위한 어떠한 제의가있다면 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관할사항이며 나토에서 논의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蘇聯관영타스통신은 와인버거국방장관과 존·노트 英國국방상과의 회담이 중성자탄을 유럽에 배치시키기위한 설득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었다.

리비아機의 메시지 美전자探知로 포착

【워싱턴21日 UPI=綜合】 지난19일 시드라灣에서 美F14전투기에의해 격추된 蘇製SU22전투기에 탑승했던 리비아조종사는 공중전에 들어가기 직전 리비아공군기지에 美항공모함과 교전에 들어갈 태세에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었다고 밝혀졌다.

美정부소식통들은 아랍語로 된 이메시지가 모처에 위치한 전자탐지장치에의해 포착되었다고 말하고 아랍語를 해독하는 전문가가 메시지를 판독한결과 탑승조종사는 리비아인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보이저2號가 찍은土星 토성 탐색선 보이저 2호가 지난15일 토성상공 1억7백20만㎞지점에서 찍은 토성北半球사진. 북위47에는 高速제트氣流이 몰아치는 리샘모양으로 휘어져있고 바로 그위로는 두줄의 짙은 띠가 보인다. 이 짙은 테두리는 가장자리까지 띠가 없이 같은 모양을 하고있는것으로 미루어 토성대기권에는 爆風현상이 없는 것으로 믿어지고있다. 【보이저2호AP羅=綜合】

蘇도 中性子彈생산 美에 對蘇협상촉구

【모스크바21日 外電=綜合】 소련은 미국의 중성자탄생산결정에 대응, 중성자탄의 자체생산을 검토할지도 모른다고 21일 소련의 한 고위시사논평가가 시사했다.

管制士들 조건부復歸검토

파업終熄위해…"重大돌파구환영"

【워싱턴22日 UPI=綜合】 레이먼드·도노반 美노동장관은 21일 19일째 계속되고 있는 美직업항공관제사기구(PATCO) 소속관제사들의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백악관은 해고된 관제사들의 조건부직장복귀를 허용하는것을 포함, 새로운 제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노반장관은 이날 미시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유예기간』을 포함한 해고관제사들의 직장복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지난3일부터 계속돼온 관제사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PATCO대변인은 도노반장관의 발언이 관제사파업 종식에 중대돌파구가 될수있을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만약 정부가 PATCO와 대화를 재개한다면 『PATCO는 48시간이내에 관제사파업을 종식시킬수 있으며 3일이내에 완전한 정상체제로 복귀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메아리

개학을 맞아 도시로 떠나는 자녀를 둘러싸고 한 가족이 정겹게 시골길을 거니는 모습은 인정이 담긴 한국의 그림 같다. 서울 가신 아빠가 돌아오는날 기차역에 나온 아이들의 얼굴엔 그리움과 기대감이 넘쳤다. 이런 장면은 이제 옛날 동화처럼 들린다.

기차역이고 버스터미널이고 송영객이 없이 오가는 승객만으로도 앞이 가릴 지경이 되었다. 그렇지만 김포공항 터미널만은 다르다. 여행자의 10배가 넘는 송영객으로 숨이 차다.

지난해 8월 웅장한 새 국제선 청사가 들어선 김포공항엔 올봄부터 여객이 크게 늘었다. 하루평균 국제선 승객이8천여명,국내선 손님은 2천여명을 헤아린다. 많은 날엔 출입국자가 1만2천명이 넘어 몹시 붐빈다.

항공기의 이착륙도 80년 매일 68편에 비해 올해는 80여편이나 된다고 한다.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지난 7월말 현재 여행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이 증가했다. 관광객의 입국도 9.6%나 신장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85년까지 불편없이 견디어 낼수있으리라던 새

送迎의 節制

국제선청사는 1년도 못되어 벌써 비좁아졌다. 출입국자의 숫자가 올라가는것은 자랑스러우나 이보다 더 늘어난것은 송영객인것 같다. 하루 1만여명의 손님을 보내고 맞기 위해 공항에 발걸음하는 사람이 10만명을 웃돈다. 완벽하다는 냉방시설도 「10만의 체온」으로 별로 시원한 감을 느낄수 없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미국의 댈라스포트워즈공항은 74년에 개설되어 앞으로 1억5천만명을 수송·수용할만큼 엄청나게 설계했다. 오일 달러로 기세를 올리는 사우디의 제다공항은 내년 완공예정인데 그 넓이가 1만6백헥타에 달한다. 공항규모도 국력을 말해주는 세상이다.

김포공항을 이에 비할수는 없지만 지금같은 사정이 계속되면 한해 3천~4천만명이 복작거리는 「과밀공항」으로 될것은 틀림없다.

한순간의 「惜別의 情」을위해 이같이 많은 사람이 과연 아까운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야 하는지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사람만이 공항에 드나들게 送迎의 節制」를 지켰으면 좋겠다.

오늘의 歷史 <23일>

- ▲日, 對獨 宣戰布告 (1914)
- ▲獨·蘇, 불가침조약조인 (1939)
- ▲日帝, 여자정신대제실시 (1944)
- ▲張勉내각성립 (1960)
- ▲周恩來, 소련의 사회제국주의를 비판 (1968)
- ▲仁川앞 실미도 특수범무장난동 (1971)
- ▲긴급조치 1·4號해제 (1974)
- ▲불가리아, 韓國외교관 입국허용 (1977)

부동산 매매

※바라이어티 스토어

주매상 3천불
ALL OPEN. SHORT HOURS.
원래 주매상 4천5백달러 시간 단축과 건물요일 단축으로 매상이 줄어음

스토어 앞에 큰 아파트가 새로 서고 있음

이층에 2 베드룸 아파트와 베첼러 아파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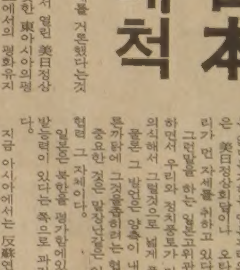
ASKING 2만5천달러
부인이나 노인 혼자 운전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근무 할때는 매상이 크게 향상 될 것임

이윤이 많음

신용을 본위로 하는 이훈모 부동산을 찾아 주세요.
☎ : 221-2084. 633-6813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이훈모 부동산회사

사람을 찾습니다



본 명 : 이 시 교
(또는 이삼구)
나 이 : 4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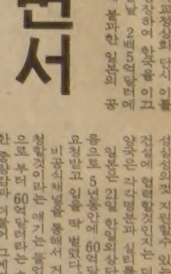
이 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을 가장하여 토론토의 한인여성과 결혼 이곳 영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온 후 곧 동 여성과 헤어져 미국 뉴욕등지와 토론토의 수많은 남편 없는 이혼여성들을 농락 돈을 갖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음

본인은 이 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돈과 새 자동차(폰티악 80년도)를 사기당함으로써 이 자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하니 혹시 이 자의 거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의 팔뚝에는 한국에서 여자에게 입으로 물린 상처가 있으며 · 콧수염을 기르고 있음

연락처 : 291-4547 미세스 윤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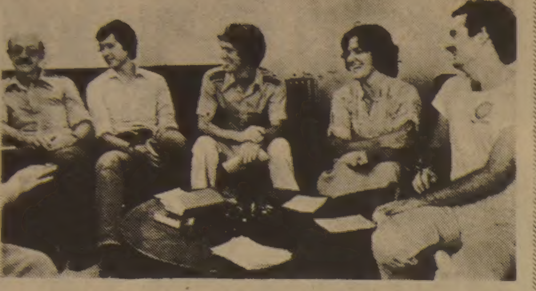
1) GM의 각종 모델 700여대의 스탁
2) G. M. C. 경량급 VAN, TRUCK 일체취급
3) 최고의 TRADE-IN
4) 1년 보장의 USED CAR
5) SERVICE EXELLENCE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癩환자 너무冷視…고쳤으면

"따뜻한 한국人情 잊지 못해요"

獻身15年 美로 철수하는 平和奉仕團 그룹인터뷰



◇한국에서 봉사활동중 겪은 체험담을통해 「코리아」를 말하는 평화봉사단원들. (왼쪽부터 조지·히만, 손·골드리, 알렉스·마이러, 수잔·크라우더, 폴·고트라이트)

제사지내는 敬祖思想 가장 부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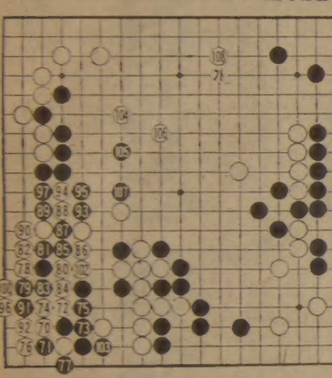
젊은이들 마구잡이 離農…큰 걱정

公務員들의 오만·美留學편중 없어져야

「사랑과 헌신의 사절」인 美평화봉사단이 오는 9월30일 전원미국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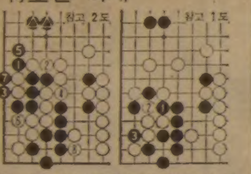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5譜 70～108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勳

白軍 有望한 국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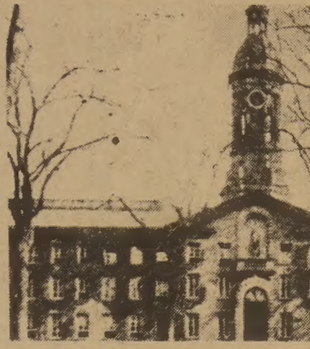
참고 2도 참고 1도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㉘

美留學때의 校外활동

유학생회 幹部로 日帝규탄 獨立호소

茶·인삼등 自動車行商으로 돈벌기도



◇나는 학생회활동과 行商을 併行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사진은 내가 다녔던 프린스턴大學。

젊은이

학생手記 「내가 보낸 여름放學」

아파트工事場서 땀의 참뜻 배워

친구덕에 막노동 알선받고

어려운 돈벌이…귀중한경험

이제 무슨 일이든 自信과 용기

한상운 〈淸州대학교신문방송학과2학년〉

海外 研修대학생 휴대품

10萬원 넘으면 稅金물려

「新羅의 신비」 韓國 放送大賞결정

▲작품상 (8개부문)

한국일보 詩壇

사는 法

金市宗

休日엔 하늘같은 외로움을 부리러

山으로 간다.

고개위에 걸려 있는 흰 구름,

흰 구름을 받치고 섰는 튼튼한 나무.

休日엔 山같은 외로움을 덜러

江으로 간다.

江에 잠긴 하늘 자락이

생선처럼 퍼덕인다.

외로움을 비운 가슴 자리에

보람을 한 말채 채워온다.

푸름을 한 아름

안고 온다.

모순둥이 뭐시 生 <182>

趙善作 作
禹慶熙 畫

灰色 노우트 ⑭

모든 廣告活動의 自信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第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효자잡지를 …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861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좋이 상담하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 드립니다.

연락번호 (212) 762－5100
연락주소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목돈 만드는 신용적금
목돈 주는 적금대출

적금월부금표 (단위 $)

계약고＼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1,000	79.30 (951.60)	51.48 (926.64)	37.58 (901.92)	29.25 (877.50)	23.69 (852.84)
3,000	237.90 (2854.80)	154.44 (2779.92)	112.74 (2705.76)	87.75 (2632.50)	71.07 (2558.52)
5,000	396.50 (4758.)	257.40 (4633.20)	187.90 (4509.60)	146.25 (4387.50)	118.45 (4264.20)
10,000	793. (9516.)	514.80 (9266.40)	375.80 (9009.20)	292.50 (8775.00)	236.90 (8528.40)
30,000	2,379.00 (28,548.00)	1,544.40 (27,999.20)	1,127.40 (27,057.60)	877.50 (26,325.00)	710.70 (25,585.20)

현행예금 금리표

정기예금

기간	금리
30～89일	19 ¼%
90～179일	19 ½%
180～364일	19 ¾%
1년 이상	19%

일반예금 18.5%

온타리오주법과 보험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 신용조합
KOREAN TORONTO CREDIT UNION LTD.
712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L4
(416)533-9387, 8
야간 : 921-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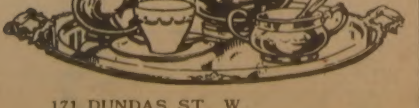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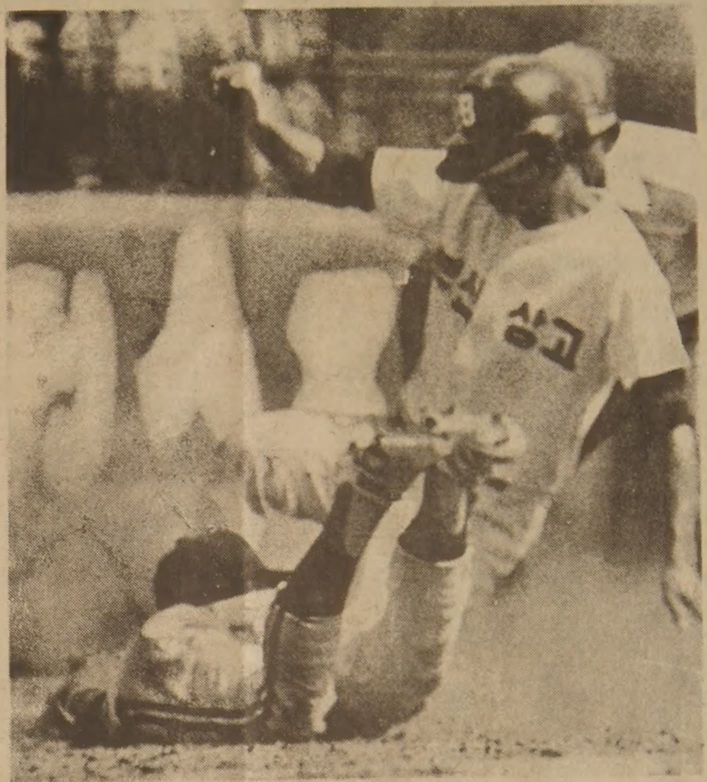
逆轉거듭…釜山商、光商추격 뿌리쳐

릴리프 鄭翔立 위기수습

張彩根(光商) 투런홈런 無爲

5－3

鳳凰大旗 고교野球



◇수비혼란틈타 재빨리 3루에 釜山商과 光州商의 준준결승. 9회초 釜山商의 2번宋沅侑가 번트를 대자 光州商의 수비진이 어물어물하는 사이 1루주자 姜秀京이 3루까지 달려들고있다.

慶北高와 釜山商高가 제1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 4강고지에 선착했다. 지난해 우승팀 慶北高는 1회초 선두 柳仲逸, 權宅峯의 연속 3루타로 淸州高 마운드를 뒤흔들며 차완 朴春錫의 적투로 淸州高의 막강을 1점으로 막고 5－1로 완승했다. 스타부재로 고심하던 釜山商高는 의외로 선전, 차완 李鉉澤과 우완 鄭翔立의 계투로 강적 光州商高의 타봉을 산발8안타, 3실점으로 막고 때맞춘 하위타선의 연쇄폭발로 5－3으로 승리했다. 이날 4강문턱서 주저앉은 光州商의 4번 張彩根은 대회 11호 2점홈런, 淸州高의 6번李揆晃은 대회 12호 좌월 솔로·홈런을 날렸다.

釜山商·光州商

光州商이 우세하리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언제나 우리가 뒤지는 편이지만 열심히 뛴 덕분』이라는 李宇감독의 소감처럼 釜山商은 무리없는 착실한 공격으로 살얼음 같은 리드를 지켜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다. 게임은 묘하게 釜山商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2회초 釜山商은 선두 5번 林相根이 좌전 첫안타로 나가 보내기번트와 光州商선발 朴京桂의 의폭투, 7번 車正柱의 스퀴즈번트로 선취점을 올렸다. 光州商역시 2회말 선두5번 朴聲鉉이 좌월2루타를 때렸으나 베이스에 발이걸려 중심을잃고 불운하게 태그·아웃 당했다. 그러나 4회말 1사후 3번柳佑錫의 좌중월2루타에이어 4번張彩根의 대회 11호, 자신의 두번째 2점호머로 2－1의 역전에 성공했다.

釜山商의 역전홈런을 맞아 흔들리는 수비진을 우완鄭翔立의 구원역투로 잔신히 수습, 6회초 鄭翔立의 동점2루타와 鄭志浩의 역전타로 다시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다. 8회초에는 1사후 7번 車正柱가 좌전 결승타를 때려 승리를 굳혔다.

慶北高·淸州高

慶北은 에이스成埈을 제쳐놓고 또한명의 언논 투수 朴春錫과 선두타자겸 유격수 柳仲逸의 기용을 자랑하며 在日동포를 꺾고 올라온 淸州를 완파했다. 한 이닝 연속3루타의 진기록을세웠던 慶北의 선두 柳仲逸은 1회말공격이 시작되자마자 淸州선발 張定淳의 2구를강타, 우측펜스까지 구르는 3루타를날렸다. 이어 등장한 2번權宅峯도 우중월 3루타를 날려 張定淳을 다운시키고 1점을선제했다. 權도 3번 洪淳浩의 左犧飛로 홈을밟아 慶北은 2－0으로 리드. 4회말에는 안타로 나간 3루주자 4번 崔武永과 1사후 적실로 1루에 있던 曺光濟이 더블·스틸을 감행, 曺는 2루에서 아웃되었으나 3루주자 崔는 무사히 홈인했으며 6회말에는 3번 洪淳淸가 중전안타와 수비실책으로 3진한후 4번 崔武永의 中犧飛로 홈인, 2점을 추가했다.

淸州는 4회초1사후 4번李相明이 좌월2루타를 치고 나가 5번 金鎭圭의 좌전히트로 홈까지 달려들어왔으나 플레이트 위에서 간발의 차로 본사했으며 뒤이어 6번 李揆晃이 좌전안타를 때려연속 3안타로 1점도 얻지못해 고속버스로 원정온 수천의 모교 응원단을 안타깝게 했다.

침체에 빠져있던 淸州는 7회초 1사후 6번 李揆晃이 대회 12호 좌중월 솔로호머를 모교응원석에 꽂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7, 8회초 1사1, 2루로 계속된 찬스를 후속범타로놓쳐 승기를 잡지 못했다.

◇제16일 준준결승

부산상	010	002	011	5
광주상	000	200	010	3

▲부상투수＝李鉉澤 ▲팔상투수＝丁海德 ▲광립(4회) 포수＝朴京桂 馬承龍(6회)·포수＝張彩根 ▲홈런＝張彩根(4회말·2점·광주상)

청주고	000	000	100	1
경북고	200	101	01×	5

▲청주투수＝張定淳(1, 8회)·金鎭圭(1회) 포수＝南敎範 ▲경북투수＝朴春錫·成埈(7회) 포수＝申成哲 ▲홈런＝李揆晃(7회초·청주)

淸州도 홈런치고 물러나 慶北高와 安打數는 7·7

鳳凰스타

釜商 구원投手 鄭翔立 금년첫 4強진입 主役

우완 구원투수 鄭翔立(3학년)이 쉽을 직전 鄭은 커브와 슈트를 주무기로 사용하며 릴리프로서 진가를 높이고 있다. 釜山鎭국교 5년때 야구를 시작, 釜山東成中에 진학하고부터 투수로 활약했다. 釜山商은 1사1, 2루의 위기에 張彩根의 2점 호머에 휘청거린 釜山商의 구원을 구해 금년 처음 4강으로 이끌었다. 4회말 光州의 강타자 張彩根의 2점 호머로 역전당한후 1사1, 2루의 위기에 등판한 鄭은 5회 3분의2동안 光州商 타선을 4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 鄭은 6회초 좌중월2루타와 역전득점으로 팀에 승기를되찾아 주었다. 1m75, 65kg의 체격이다.

花郞、불가리아와 共同優勝

印尼국제축구 延長종료직전 석연찮은 PK 허용

2－2

◇花郞팀주장 趙廣來 선수와 불가리아의 주장 디미트로프선수가 자카르타시 창립제10주년 기념축구대회에서 공동우승한후 관중들에게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있다. 【자카르타21日AP電送＝聯合】

【자카르타＝聯合】 한국의 花郞팀은 21일밤 이곳 세나얀경기장서 벌어진 제10회 자카르타市창립기념국제축구대회 결승전서 불가리아와 연장전을 포함한 1백20분간의 격전끝에 2－2로비겨 두팀이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花郞은 연장23분께 崔景植이 귀중한 골을 성공시켜 2－1로리드, 단독우승을 눈앞에 두었으나 연장종료직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여 2－2로 비기고 말았다.

花郞은 전반14분 FW 邊炳柱의 수훈골로 1－0의 리드를 지켜나가다가 후반15분께 불가리아에 골을허용, 1－1 타이스코어를 기록했다. 花郞은 후반서 여러차례의 실점위기를 맞았다.

한국은 76년, 78년대회서 忠武팀이 우승한이래 이대회서 세번째로우승을차지했다.

3, 4위결정전서는 멕시코가 인도네시아의 우타마를 3－0으로 물리쳐 3위를차지했다.

◇최종일전적

▲결승전

한 국 2 (0－1, 1－0, 1－1 연) 2 불가리아

〈공동우승〉

한국女子 결승進出

太平洋J배구서 破竹의 6연승

【힐로(하와이) 22日＝聯合】 호놀룰루를 맞아 연습경기를 한국주니어여자배구팀이 6연승으로 제8회 태평양연안청소년배구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여자팀은 22일새벽(한국시간) 힐로종합체육관서 속행된 예선6차전에서 호놀룰루를 1시간만에 3－0으로 물리쳤다. 한국은 이날 하오 캐나다와 예선최종경기를 남기고 있으나 1, 2위팀끼리 벌이는 23일의 결승전에 진출하게됐다.

하듯 선수전원을 고루기용, 쉽게 경기를 이끌었다.

한국여자팀은 이날 약체

◇제4일전적

▲여자부

한 국 3 (15－2, 15－5, 15－2) 0 호놀룰루 (6승) (6패)

◇제3일전적

▲남자부

한 국 3 (15－10, 15－2, 14－16, 15－2) 1 일 본 (3승) (2승1패)

全斗煥대통령 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21일 제10회 자카르타축구대회에서

洪顯旭우승

장사씨름서 6勝1敗로

洪顯旭(현대중공업)이 제11회회장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 금년 시즌 첫대회에 출전하여 장사타이틀을 차지했다.

洪顯旭은 22일 仁川실내체육관에서 속개된 대회최종일경기 8강리그전에서 富平高의 張志淳에만 1패를 기록하고 전년도우승자 李俊熙장사등 6명을 모두 물리치고 6승1패로 우승을 했다.

洪顯旭은 79년도대회에 우승한바 있다. 崔旭珍(경상대)이 2위, 전년도 우승자 李俊熙는 3위를 했다.

한국팀이 우승한데 대해 祝電을 보내고 『우수한 戰績으로 우승을 차지한 선수여러분과 임원들에게 축하와함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바입니다』라고 말했다.

KO王 고메즈、최초로 KO敗

페더급챔피언 산체스와 世紀 대결

8回에 連續打 얻어맞고 무릎꿇어

【라스베이가스21日AP＝聯合】 프로복싱 WBC 슈퍼밴텀급 챔피언이며 공포의 강타자로 인기를모으던 윌프레도·고메즈(24·푸에르토리코)가 프로데뷔이래 최초의 패배를 기록했다.

WBC 페더급 챔피언인 살바도르·산체스(22·멕시코)는 22일낮(한국시간) 이곳 시저스팰리스호텔 특설링에서 벌어진 타이틀6차방어전서 도전자 윌프레도·고메즈를 8회2분9초만에 KO시켜 그의 선수생활에서 가장 화려한 승리를 장식했다.

8회 시작되자 고메즈는 WBC 슈퍼밴텀급챔피언 6개의 左右펀치를 안면에 얻어맞고 녹다운, 비틀거리며 언타이틀을 가진채 한체급위의 타이틀에 도전한 고메즈는 산체스의 정확하고 예리한 펀치를맞아 5회부터 더 눈언저리가 퉁퉁부은채 고전했다.

스·파디아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산체스의 KO승을 선언했다.

산체스는 이날의 승리로 40승(30KO) 1무1패를 기록했다.

고메즈는 74년11월 프로복싱을 시작, 데뷔전서 무승부를 기록한후 32차례의 경기를 모두 KO로 장식하다가 KO패하고 말았다.

고메즈는 WBC 슈퍼밴텀급 타이틀을 14차례 방어, 한후 페더급선수로 세번째 경기에 나섰다.

韓·이라크축구경기 來10월 바그다드서

한국대표축구팀 花郞이 이라크와 오는10월 친선교환경기를 갖는다. 花郞팀은 오는10월21일바그다드를 방문, 이라크대표팀과 한차례 친선경기를 갖기로 합의했다. 韓國과 이라크가 스포츠교류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中·高유도 연맹전 大邱啓聖高 우승

제9회 추계 전국 중고유도연맹전 이틀째경기가 22일 잠실 학생체육관서 속행, 고등1부 단체전서 大邱啓聖高는 釜山體高를 5－2로누르고 우승했다. 고등 2부서는 京畿 大新高가 慶北體高를 4－3으로꺾고 우승했다.

流星의 賦 〈16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⑮

신통한 인물, 기발한 인물, 탁월한 인물들이 그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 간 예는 많다. 그 두드러진 예를 현대에 찾으려면 프랭클린·루스벨트를 명 대통령으로 만든 어느 사람을 들 수밖에 없는데, 루스벨트의 아들이 기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아마비(小兒痲痺)에 걸려 은거생활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던 루스벨트가 정계진출에 뜻을 둔 시초부터 그 ×란 사람의 지도 때문이었고, 「뉴딜 정책」을 비롯해서 루스벨트를 역사적인 대인물로 만들게 한 갖가지 정책과 행동의 거의 모두가 역시 그 ×란 사람의 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루스벨트의 아들은 그 기록의 마지막에

『오늘날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여 세상에 모를 사람이 없을 테지만,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그 분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고 감동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역사, 특히 이조(李朝) 때 많았을 것이고, 그런 사례이와 비슷한 인물의 수는 적잖을 것이고, 그런 사례가 우리 나라의 역사, 특히 이조(李朝)때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영도 그러한 부류에 드는 사람이다. 아무 곳에도 소상한 기록이 없으니 장담할 순 없지만 선조에게 불만한 치적(治績)이 있었다면 이영의 덕택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조차 한다. 예를 들어 율곡 이율곡(李栗谷)을 버리지 못하게 권고한 것도 이영이며, 이율곡을 견제(牽制)하게 한 것도 이영이란 말이 있지만 모두 항담(巷談)에 속한다.

각설하고 이영과 선조의 만남은 선조가 하성군(河城君)이었을 십팔살 때, 이영이 다섯살 때이다.

충청도로 원행(遠行)했다가 돌아올 때 덕흥군(德興君) 즉 선조의 아버지가 다섯살 난 사내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때 덕흥군이 아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우리들의 먼 친족이다. 그러나 계촌(計寸)할 것까진 없다. 너희들은 형제처럼 지내라』

고 했다.

두살 차이인 때문도있어 영은 특히 하성군 연(昖)을 따랐다. 연 역시 영을 좋아했다. 그러니 자연 같이 공부를 하게되었는데 영의 총명은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도 스승으로부터 칭찬받을때면 말을더듬어 대답하지 안했다. 스승의 매질이 있었지만 어린 영은 눈물만 흘릴뿐 끝끝 대답을 안한했다. 나중엔 스승도 단념하고 영에겐 강을 받지 않았다. 뒤에서 안 일이지만 이영은 자기의 학력이 더 훈훈 상헌제를 능가하고있다는 증거를 만들기가 싫었던 것이다.

연, 즉 선조의 학력이 유(籲)를 누르고 출중하게 자란 데는 이영의 조력이 적잖게 작용했다. 연을 띄우고 놀때나 자치기를 하고 놀때 이영은 적절한 때를 골라 연이 배운 대목을 일깨우게 했다. 가령 연이 하늘 높게 올라가면

『묘묘혜여회(渺渺兮予懷) 망미인혜천일방(望美人兮天一方)』

이라며 이영은 술쩌 읊어놓고 그것을 계기로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 전편을 창화(唱和)하게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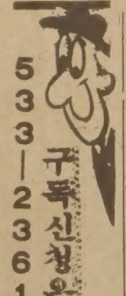
여름밤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

『성월교결(星月皎潔) 명하재천(明河在天)』

이라고 하고, 서리가 내리면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

라고 하여 선조의 호학(好學)을 북돋우기도했는데 이러한 것이 이영이 육세때의 일이었고 보니 그총명과 신중함은 가히 짐작할만 했다.



韓·日고교배드민턴 聖旨女、日선발꺾어

제14회 韓·日고교배드민턴 친선교환경기대회에서 馬山聖旨女高는 日本여자고교선발팀에 3－2로 이겼으나 忠州工高는 日本남자고교선발팀에 3－2로 역적패했다.

22일 YMCA체육관에서 열린 1차전에서 聖旨女高는 국가대표 金練子 柳尙希의활약으로 진나이·키미코(陣內貴美子)가 분전한 日本여자팀을 3－2로 제압했다. 忠州工高는 成漢國·徐成珉복식조가 첫세트를 따냈으나 成珉이 日本고교 랭킹1위인 마쓰우라·신지(松浦進二)에 패해 2－2로 타이를 이룬후 尹重烈이 마쓰노·슈지(松野修二)에 패해 3－2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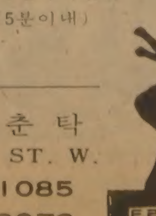
전국 女性사격대회

제9회회장기쟁탈전국여성사격대회가 오는27, 28양일간 泰陵종합사격장서거행된다.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534－2003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심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2MEADOWGLEN PLACE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괴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내년大入요강놓고 陣痛 — 서울市內 주요大學

各大學 學科別모집 전환 文敎部 系列別고수

서울大, 高麗大, 延世大, 梨花女大등 서울시내주요대학들이 82학년도입시요강을확정짓지못한채진통을겪고있다.

대학별 신입생요강은 문교부가 앞서 늦어도 8월21일까지 확정, 보고하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보고를끝낸 대학은 거의가 지방대학일뿐 서울에서는 西江大, 成均館大등 극히 일부대학만이 보고를 끝낸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대학들이 마감일을 넘기면서까지 신입생모집요강을 확정하지못하고 있는것은 주로 내년도 신입생의 모집단위를 어느정도 세분화할것인가에 대한 논란때문인데 대학교수측은 입시관리상의 편의와 비인기학과보호등을 이유로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할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문교부는 종전의 계열별 모집원칙을 너무흔들지말라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대학측이 학과별모집을 고집하는것은 내년도 입시제도가 동일대학내 복수지망을 허용, 이를통해 정원부족을 막으려 하는이상 모집단위를 가능한한 학과별로 세분, 수험생들에게 선택할수있는 전망학과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기본입장과함께 그동안 계열별모집때문에 2학년진급때의 학과배정에서 많은물의가 빚어졌다는점등을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문교부는 계열별모집이 갖는장점과 모든 대학이 갑자기 학과별모집으로 전환할경우 학생들에게 큰혼란을 줄우려가있다는점을들어 『될수있는한 지나친학과별 모집을 억제하라』는 지침을 최근 각대학에 시달했던것.

이같은 배경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계열및 학과모집을절충, 병행하는선에서 모집단위를세분하는작업을벌이고있다. 한편각대학들은내신성적 반영비율과 대학내 지망폭에 대해서는 대체로 쉽게확정, 많은대학이 고교내신을 총점의 30%이상반영, 지망은 제2지망허용과 제3지망허용 두가지로 압축되고있다.

◇대학별 82학년도 신입생선발의 주요요강

대학	모집방법	내신성적	지망
釜山大	학과별 (공대기계계열제외)	30%	제2지망허용(음악·미술1지망)
東亞大	8개소계열및 일부학과별	일반 32% 예체능 30%	제2지망
海洋大	학과별	32%	〃
水產大	수산계만학과, 나머지계열	30%	〃
釜山產業大	학과별	30%	〃
東義大	법정·상경계열 기타 학과별	32%	〃
釜山女大	학과별	일반 32% 예체능 30%	제3지망
仁濟醫大	의예과 단일모집	30%	
[illegible]尙大	계열별	32%	제2지망
[illegible]南大	학과별	30%	〃
[illegible]山大	〃	32%	제3지망
[illegible]南大	약대·음대계열기타학과별	30%	제3지망
[illegible]明大	계열별	〃	제2지망
[illegible]社大	인문대등계열, 경상대등학과별	〃	〃
[illegible]南大	계열별	〃	〃
[illegible]鮮大	학과별	〃	제3지망
[illegible]北大	계열별	30%	제3지망
[illegible]州大	학과별	〃	제2 〃
[illegible]光大	학과별	〃	〃
[illegible]南大	계열별및학과별	〃	〃
[illegible]州師大	학과별	〃	제3지망
[illegible]大	학과별	〃	제2지망
[illegible]北大	학과별	일반30·6% 예체능30·5%	〃
[illegible]州大	미정	30%	〃
淸州師大	학과별	일반 40% 예체능 30%	제3지망
江原大	학과별	30%	제2지망
江陵大	학과별	〃	제3지망
[illegible]東大	학과별	〃	제2지망
[illegible]州大	미정	〃	〃
尙志大	학과별	〃	〃
西江大	학과별	30%	제3지망
成均館大	계열별	30%	〃

姜根鎬씨 구속

半島조선 아케이드代表 — 49億상당 점포運營權 가로채

서울지검 형사1부 [illegible]검사는 22일 반도조선아케이드 사장 姜根鎬씨(47·전국회의원)와 이회사 전무 韓大鈞씨(41)등 2명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와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의하면 姜씨는 구반도조선아케이드가 지난 77년 6월 철거된후 구성된 반도조선아케이드재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3월 부인, 친척등과합께 별도의 반도조선아케이드를 설립, 국제관광공사에 상인이 설립한 법인인것처럼 신고해 49억원상당의 아케이드점포 신축권과 소유권을따낸 협의를 받고있다.

◇구속된 姜根鎬씨。

드링크얻어먹고 重態

電話수리나간 전화국職員 — 木浦, 社長살해노린 犯行수사

【木浦=聯】 전화수리를 나간 전화국직원이 선반회사사장에게 보내진 독극물이 든 드링크제를 잘못 받아마시고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월25일 하오4시께 전남木浦市 京洞2街5 김운수씨(72·조양교수대표) 집에서 전화선로수리를 나온 木浦전화국 선로계직원 최학현씨(26)가 수리를 마친후 주인 김씨로부터 드링크제 1병을 받아마시고 그자리에서 쓰러졌다.

최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식도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식도협착증으로 22일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

김씨에 따르면 이 드링크제는 지난 4월18일부터 23일까지 자신이 신병으로 木浦십자병원에 입원했을때 문병객이 가져온것중 남겨둔 한병이라는것. 최씨는 이날 김씨가 꺼내준 드링크제를 한모금 마시자마자 곧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씨가 먹다남은 드링크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21일 이병에 독극물인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돼있었다는 통보를받고 이에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극약을 섞어 넣은 드링크제를 최씨가 잘못받아마시고 이같은 변을 당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illegible]

서울市住宅管理과장 구속

韓信工營사건 관련

한신공영의 신반포 15차아파트 건축승인을 둘러싼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2일 서울시 주택관리과장 吳基哲씨(5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협의로 추가 구속했다.

검찰에의하면 吳씨는 민영아파트 설계도면의 기술검사및 준공검사를 담당하면서 지난달25일 한신공영 상무 李吉씨(61)로부터 신반포 15차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빨리 해달라는 부탁과함께 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4차례에걸쳐 모두 2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신공영 아파트사건에 관련, 구속된 서울시공무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光州 어린이헌장탑 除幕 — 어린이大公園

【光州=聯】 光州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헌장탑 제막식이 22일 상오11시 金良培 光州시장을 비롯한 시내 각급기관장과 시민·어린이등 1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이 어린이헌장탑은 光州시내 로터리클럽 회원들이 2천만원을들여 건립한것이다.

나룻배 너무 낡아 洛東江운항 위험

【安東=聯】 경북安東지방의 20개 도선장에서 운항되고있는 30여척의 목선들이 대부분 낡아 사고위험을 안고있다.

油價, 인플레앞질러 今世紀末엔 2%線

【뉴욕21日聯=聯】 미국의텍사코석유회사는 2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油價가 금세기말까지 年인플레상승률보다 2%정도 높은선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코는 제네바 OPEC 특별석유상회의가 油價전략을둘러싸고 진통을 겪고있는 것과 때를같이해 이날발표한 보고서에서 그와같이 전망하고 OPEC가 엄격하고도강력하게 생산을통제하지 않는한 油價를 이수준이상으로올릴수없을것이며 설사 통제를 한다하더라도 이전처럼 高油價를 견지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체이스·맨해턴은행의 에너지그룹은 최근 油價가 80년대를 통해 인플레상승률보다 3%높은 수준에서 인상될것이라고 전망했었다.

西方이익에 奉仕 — 이란, 사우디非難

【런던21日聯=聯】 이란은 21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인상과 석유감산거부로 서방세계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프산자니 이란국회 의장은 이날 OPEC 석유상회의가 아무 성과없이 폐막되기직전 테헤란방송을통해 『사우디가 제네바 OPEC 석유상회의에서 장애물이 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우디는 가난한사람들의 이익을 희생시켜 서방세계의 이익에 봉사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우디가 계속 저유가에 多輸油정책을취하고 있는것은 美·英·獨등의 석유저장탱크를 채워주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眞性뇌염 京畿 江華서 첫발생

14세少年 혈청검사서 판명

擬似환자 34명… 날로늘어 — 保社部 치료비 50%보조등 긴급對策

경기 江華郡에서 금년들어 첫 진성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보사부는 22일 경기江華郡 華道面 文山里 조철호군(14·가명)의 혈청검사결과 진성 뇌염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어린이들을 모기로 부터 보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군은 지난 13일 고열과복통 두통 구토등의 증세로발병한후 19일 서울연세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市·道立병원선 無料로 치료 — 작년엔 百7명발생 넷 死亡

보사부는 이에 따라 각시도에 일본뇌염치료약품비를 긴급 배정하는 한편 의증뇌염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진단, 치료및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도록 거듭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뇌염환자에 대해서도 진성이나 의증뇌염 환자를가리지 말고 각 보건소와 시·도립병원에서 무료치료 해주도록 지시하고 일반 병·의원에 대해서도 치료약품을 지원하는한편 의료보험 진료권을 적극활용해 치료비의 50%를 감액해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초부터 전남珍島 光州등을 비롯, 전국적으로 발생한 64명의 의증뇌염환자중 52건은 혈청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2건에대해 현재검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의증뇌염환자발생이 지난19일까지 34명이던것에서 하순을 맞으면서 현저히 늘어나 각별한주의를 국민들에게당부했다.

작년의경우 8월19일 전남光州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뒤 10월19일까지 2개월간모두 1백7명의 일본뇌염환자가 발생, 4명이사망했었다.

發病3~4일째 死亡率높아

—뇌염환자의 感染서 치료·예방까지

高熱에 복통설사…3~14세아이 잘걸려 — 영양분 충분히공급 얼음마사지도 자주

감염경로 뇌염은 빨간집모기 (일명뇌염모기)에 의해 전염되는데 이모기는 온도가 섭씨27~28도 습도가 80%일때가장 번식력이 강하다.

감염경로는 빨간집모기속에 들어는있는 뇌염바이러스가 돼지의 피를빨아먹을때 돼지의 혈액속에 들어가 번식한다. 이돼지의 피속에서 자라고있던 바이러스는 다시모기의 흡혈에의해 모기의몸속에서 번식을 계속하고 이모기가 사람을 물때 인체에 침입한다.

몸안에 들어온 뇌염바이러스는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 모세혈관의 內膜이나 臟器에 기생한다. 특히 이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통에 친화성이높아 신경세포에 급속히 증식된다. 그러나 빨간집모기에 물린 모든 사람이 다 뇌염에 걸리는것은 아니고 주로 3~14세사이의 어린이들이 걸린다. 지금까지 역학조사결과 2천명의 사람중 단 1명에게만 발병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다. 뇌염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해서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간은 약 2주일 정도.

증세 뇌염의 증세는 갑작스런 두통과 발열로 시작된다. 시간적으로보면 발병 첫날은 두통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권태감이오고 복통과 설사를하기도한다. 발병 2·3일에는 체온이 39~40도까지 오르고 재속구역질이나며 혼수상태에 빠져 손발에 경련이 일어난다. 발병 3·4일째가 사망률이 가장높다. 6일이 지나면 열이 내리고 의식도 회복기에 들어가며 이런고비를 넘기면 10~14일후에 모든증세가 치유되나 치명률이 높아 30~50%가 사망한다. 다행히 생명을 건져도 사지의 마비 언어장애 정신장애 전양증 수면장애등의 후유증이 남는다.

치료 특효약이 없으며 증세에 따른 對症요법을 쓴다. 우선 輸液요법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고열일때는 얼음주머니·알콜등으로 피부에서 열발산을 촉진시키며 아스피린이나 클로로프로마이신을 복용한다.

예방접종 15세이하의 어린이들은 해마다 뇌염이 발생하기전에 예방접종을 끝내면 안심해도좋다. 뇌염왁진의 力價는 80%. 처음 뇌염예방주사를 맞은 어린이는 7~10일간격으로 2번맞혀야한다. 기본 접종을 끝마친 어린이는 다음해부터 1년에 1회 예방접종을 시키면된다.

新安보물不法인양 密賣적발4명검거

서울 南大門경찰서는 22일 전남新安앞바다에서 宋·元대유물 40여점을 불법인양, 관광객을 상대로 팔려고했던 金蓮錫씨(31·잠수부·충남保寧郡鰲川面蘇城里691)를 문화재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중 잠수기관주 강춘선씨(37·부산南區牛岩洞189)·잠수조수 김옥인씨(24)등 3명을 수배했다.

◇현장검증에서 尹씨를 망치로 내리치는 순간을 재현해보이는 高씨。시종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高씨는 그때의 범행을 차근차근 되풀이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 4월초 짙은 안개에다 풍랑이 심한때를 이용, 목선을타고 경비망을 피해 유물이 흩어져있는 현장에 접근, 해저 50m까지 잠수해 철조망이 처져있는 선체안에서 청자양각 모란문병등 15점을 인양한것을 비롯, 세차례에 걸쳐 40여점을 훔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20일 서울中區會賢洞신한여관에 연락망을 두고 일본인관광객등 원매자를 물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팔려고 보관중이던 유물 1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서울大生등 2명 懲役8월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李[illegible]판사는 21일 李幸錫(21·서울공대3년)·康雄植피고인(21·高麗大철학과3년)등 2명에게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망치殺人」 60분再演

눈물글썽 "패물 犯行직후 가져갔다" — 女甲富피살사건 現場검증

서울 龍山區元曉路1街10 여대 여갑부 尹景花씨(72) 일가족 집단피살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22일상오10시 元曉路1街128의14 尹씨집에서 1시간에걸쳐실시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申熙永검사 지휘로 진행된 이날 검증에서 高淑鍾씨(46)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는듯 시종 눈물을 글썽이며 尹씨집벨을 누르는 장면에서부터 尹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그고 나가는 장면까지를 차근차근 재연했다.

검은색바탕에 황색반짝이가 박힌 원피스에 흰운동화차림의 高씨는 현장검증도중지병인 고혈압과 디스크때문에 피로운듯 손으로 허리를잡은채 잠시 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경찰이 범행도구의 위치나 동작등에 대해 질문하자 순순히 응답하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위치를 고쳐주는등 여유를보여주기도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高씨는 지금까지 현장 발견후가져간 것으로 주장했던 패물과손지갑등에 대해서 범행직후가져간것이라고 실토, 스스로경대설합과 핸드백을 뒤지는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현장검증을마친 경찰은 『이번사건이 高씨의 단독범행임이 증명됐다』고 밝히고 결정적인 증거물인 대문열쇠, 피묻은 슬리퍼, 스타킹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미확보된증거물과 자백내용, 정황증거 그리고 현장검증결과로 공소유지가 충분하다고판단, 기록이 완성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것이라고 밝혔다.

泰安앞바다 寶物船 27일까지 현지探査

【安興=聯】 문공부문화재관리국은 충남瑞山郡近興面馬島앞 서남쪽 3백m지점 安興반도근해 수심20m해저에 고려청자등 1천여점의 자기류와 이를 싣고 가다가 침몰됐을 목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21일부터 오는27일까지 1주일간의 예정으로 현지탐사와작업에 착수했다.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원도우 싸인·쇼-카드 전구
●그 래 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 루 어 안 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혈,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우황●사향●웅담
●녹용●정주사●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5491

구인

JEWELERY SALES PERSON
영어에 능통하고 용모단정하며
보석판매 경험자 우대함 카나다에서
고졸이상인자에 한함
☎ : 979-3196 고 려 보 석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나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도낫·캣슬 : (도나스·샵)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398 CHURCH ST.(다운타운지역)
☎ : 977-0303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스토아 헬퍼구함 : FULL TIME
YONGE과 EGLINGTON지역
☎ : 485-4353(아침9시~정오 전화바람)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도나스 SHOP에서 일할 캐시어 구함
남자분에 한함, 밤12시~아침8시
☎ : 531-2689 1468 QUEEN ST. W.

스토아 헬퍼구함 :
ALBION RD.
☎ : 745-6330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 491-1931

매매및 양도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AGINCOURT)
스토아 주인이 병환으로 급히 매매코자 함.
ASKING가격 $35.000. 장소 : 매우 바쁜 프라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A. E. LEPAGE복덕방)
492-7333 KEN MARESCAUX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천5백달러
3261 DUNDAS W.
☎ : 769-5956

그로서리및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천달러
RENT 450달러
263 DUNN AVE.

버라이어티및 기프트가게 급매 :
주매상 $3500~$4000
☎ : 757-1097 미스타 한

맥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2500달러.
1430 Dundas w. ☎ : 531-0773. Mr. 김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킨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세 탁 소 매 매
수입좋은 PICK-UP세탁소 매매 : 월세 $300, 월수입
$2000이상(단, 바느질 할줄 아는 분에게 팔고 십습니다)
1716 QUEEN ST. E. 방문요망(프라자 안)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급 매"
POP COOLER 1 DOOR
☎ : 663-1598 미스타 서

〈매 매〉
3년된 세탁기, 3년된 DRY MACHINE, 1년된 스토브, 1년된 냉장고, 고급 응접셋트(1년됨)를 염가에 팝니다.
☎ : 275-8016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위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미니슈퍼마켓 매매
주매상 7천달러 이상(5일영업), 렌트 $1200,
리스5년+5년, 가격 6만달러+스탁
☎ : 368-1917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집·방세·하숙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50

세 놓습니다 : 2 BEDROOM APT. SABLET.
미시사가 있음.
☎ : 421-2276, 279-4997 미스타 박

방세놓음 : 8월27일 입주가능, PAPE 서브웨이에서 한블럭거리(FUNISHED)
☎ : 466-3764 오후4시이후 전화바람.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송 신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경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용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9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8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 현CA Office 근무중 ● Book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총성 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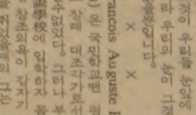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사장님, 제가 너무 안일하게 벤트리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속상하시겠죠?" "5천달러나 초과 경비가 났다면 말이죠" "속상할거라고?! 대그우드, 화가 치밀어 자넨 해고시키겠어!!" "그런 경우라면 난 이 자리에 안있겠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문호의 명언

로 댕
<1840~1917>



프랑스彫刻家. 警視廳小官吏의 아들로 파리태생. 르네상스이후 쇠퇴일로에 있던 조각에 近代的人間의 숨결을 불어넣어 근대예술속에 확고한 조각의 위치를 구축한 미켈란젤로이래 최대의 조각가.

요컨대 美는 도처에 있는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눈앞에 없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그것을 알아볼수 없을뿐입니다.

× × ×

로댕(Francois Auguste Rene Rodin)은 국민학교밖 평범한 아동으로 장래 대조각가로서의 편린을 엿볼수 없었다. 그러나 부친의 배려로 畵學校에 입학하자 몸속에 숨겨졌던 창조의욕이 갑자기 터진듯, 창작을 위했을때의 그는 感動에 넘쳐있었다 한다. 이 畵學校3년간에 그는 차츰 조각가를 지원하게돼 스스로 조각가로서의 天性을 자각한듯했다. 官立美術學校시험에 두번씩이나 실패했는데 시험관이 제출한 아카데믹한 데생을 않고 자기자신의 눈으로본 모델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을 官立學派와 대립, 투쟁했다.)

우리눈엔 안보이지만 美는 도처에 있다

그후 로댕은 10년간을 조각에다 소 관련있는 돈벌이만 한일이면 무엇이나 닥치는대로 했다. 이때 작품으로 현재 남은것으론 「父親의 胸像」(1860)이 있다. 또한 「코가 이그러진 사나이」(1864)는 청년시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76년 그는 「靑銅時代」를 제작, 파리의 살롱에 보냈다. 이작품은 로댕자신의 모습으로 그의 사실주의의 出發點이었다.

1877년 「걷는사람」이후의 로댕은 이 새로운 寫實主義속에서 작업을계속, 그로부터 죽기까지 30년간의 활동은 「地獄의 門」 제작을 위해 쓰여졌다해도 과언은아니다. 이기간중 만들어진 「생각하는 사람」(1880) 「아담」 「이브」 등도 모두 「地獄의 門」 構想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댕은 언제나 視覺的인 외면의 진실이 아닌 內面의 진실을 도려내려했다. 여기에 그가 평생을 세상의 無理解와 싸워야했던 원인이 있었고, 제작상의 고충이있었다.

20년간의 제자이던 부르델(Bourdelle)은 「참으로 로댕은 偉大하다. 그는 永遠의 苦이다. 그의 藝術은 孤獨이다. 내일의예술은 아마 다시는 이길을 걷지않으리라. 그는 內部의 불길만으로 타올랐다. 나는 彫刻家가 아니다. 나는 計算한다」면서 그와는 별도의 길을 찾아갔다. 로댕이 생애를 걸어 이룩한 巨大한 遺産은 그를 넘어설수있는 강력한 藝術家에의해 現代彫刻에 계승됐다. 로댕 없이 현대조각의 발전은 생각할수 없다해도 지나치진 않을것이다.

「참된석이 있어라…靈感에 기대하지말라. 그와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술가의 자격이란 예지이며 주의이며 성실이며 의지이다」 인용은 「로댕의 말」에서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畵
(1635)

一部 逆謀 四章 彌勒 (95)

길산이 떠나간 뒤에 남은 것은 여환과 신천 박수 오계손이와 김승혼 계화부부 그리고 원향이었다. 백련이며 다른 사람들은 모가비 일가를 따라서 관서로 출행을 나갔던 것이다. 지난해부터 나라에서는 송엽(松葉)을 권유할 정도로 흉황은 계속되고 있었다. [illegible]

키네와 같은 원류 물을 쭉 나가기로 하였던 터였다. 오계손은 오여와 의논하여 월정사와 상관 없이 그가 충실이 되기로 하였다. 여환이 앙주로 떠나기 전날 그들은 모두 바깥채방에 모여 앉았었다. 계손과 원향이 음식 숯은 저녁을 먹고 있었고 여환은 대중방에서 건너온 참이었다. 계화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저어…우리는 인제 사선을두 없어졌으니 가서 살데도 없고, 스님만 믿고 따라 가렵니다.』

『아따, 스님께서 벌써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어련히 알아서 처럼 자꾸 보채기는…』

김승호는 여환이 딴 소리라도 할까봐 조바심이나서 앞질러 그렇게 말하였다. 여환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삼경에 예전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데 양주서 삼경이야 반나절 길이지요.』

『아니 우리는 앞주 대처로 갈까 하오. 무당질 하려면 농투산이를 보다는 그래두 장사치들의 행하가 후하니까.』

여환은 내막을 아는 오계손이를 마주보며 눈짓 하였고, 계손이가 일렀다.

『공연히 작은 일자 한세 짓고 공부하시는 스님의 수도나 해방될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내왕하는것 보다는 간격을 남겨 두어야 하는게여.』 [illegible]

저 모실거라구.』 식당이 있는데 성주님이 우릴 덕이 살리지 않을까 하여서?』 오계손은 뭐라고 말을 덧붙이지 못하였고, 여환은 부드럽게 말하였다.

『그 보통이 넘어 두시우. 제가 별도움이 될것같지 않아 미리 말씀 드린것이니, 고깝게 생각마오.』

『그래두 스님, 저…원향이를 봐서라두 그러시는게 아니우.』

地方短信

女兒 저수지서 溺死
놀던튜브 바람빠져

【光州=聯】 21일하오2시10분께 전남潭陽郡東面虎溪里앞 永浦저수지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놀던 金양화양(9·潭陽동국교3년·潭陽邑東湖里)과 함마을 吳선경양(11·潭陽동국교5년)등 2명이 깊이 2m의 물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저수지중간 부분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놀던중 갑자기 튜브바람이 빠지면서 미처 헤엄쳐나오지못해 변을 당했다.